주요 노동동향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1년 1월 광공업·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생산 증가

○ 2011년 1월 광공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 컴퓨터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함. 이와 더불어 서비스업 생산도 운수, 도매·소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함.

- 광공업 생산은 기계장비(28.7%), 반도체 및 부품(24.4%), 자동차(23.1%)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영상·음향·통신(-4.9%), 컴퓨터(-11.4%), 가죽 및 신발(-5.7%) 등의 부문에서는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9.4%), 도매·소매(8.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8.0%), 금융·보험(7.8%), 출판·영상·방송(7.5%), 협회·수리·개인(6.3%), 보건·사회복지(5.9%), 교육(5.1%) 등에서 증가한 반면, 부동산·임대(-19.0%), 숙박·음식점(-0.7%) 등에서는 감소함.

○ 2011년 1월 소비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0.8%, 22.3% 증가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내구재(14.1%), 의복 등 준내구재(11.9%),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9.1%)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0.8% 증가함.
-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의 운송장비 투자는 줄었으나 반도체 제조용장비, 크레인 등의 기계류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22.3% 증가함.

- 건설기성(경상)은 공종별로 건축공사(주거용),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 실적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하였으며, 건설수주(경상)는 민간부문의 주택 및 사무실·점포 등의 발주가 감소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치산·치수, 도로·교량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3.9% 감소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9로 전월보다 1.1p 상승하여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3.0%로 전월보다 0.2%p 상승함.

◈ 2010년 연간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대비 각각 16.7%, 3.7% 증가

○ 2010년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년대비 16.7%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운수, 보건·사회복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도매·소매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대비 3.7% 증가함.

○ 2010년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1.8%로 전년대비 7.2%p 상승함.

○ 2010년 소비판매액지수, 설비투자 및 국내기계수주는 전년대비 각각 6.7%, 19.9%, 10.9% 증가한 반면, 건설기성(불변),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대비 각각 3.4%, 19.7% 감소함.

◈ 2011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4.5% 상승(생활물가지수 5.2% 상승)

○ 2011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8(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8% 상승하여 3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4.5% 상승하여 전월의 4.1% 상승 이후 2개월 연속 4%대 상승을 기록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부문만 -1.8% 하락하였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부문에서는 각각 12.2%, 6.6% 상승하였음.
- 2011년 2월 생활물가지수는 122.5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품부문은 전월대비 1.8%, 전년동월대비 8.6% 상승하였음.
- 2011년 2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25.2%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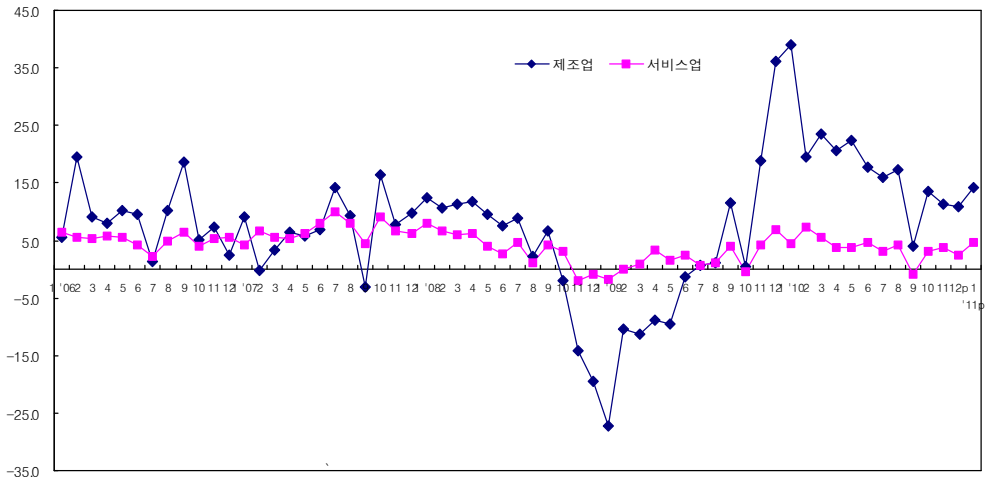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p	1월	1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6	8.9	5.6	11.3	3.0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37.0	13.7(4.6)
	제조업 생산	10.7	9.3	5.5	-12.1	3.0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7	38.7	14.1(4.5)
	출하	8.9	6.6	5.3	-10.1	2.4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4	31.4	14.4(4.4)
	내수	5.3	1.7	1.7	-11.0	-0.7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29.0	9.5(-2.4)
	수출	14.3	14.3	10.3	-8.8	7.1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2	34.6	21.3(-1.6)
	서비스업 생산	6.4	4.8	3.2	-0.4	3.4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5.7	4.6(1.5)
소비	소비재 판매	3.9	2.9	1.4	-4.2	1.0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6	6.7	10.8(4.3)
투자	설비투자	-0.9	-2.7	5.3	-13.4	-4.3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5.1	26.3	22.3(4.5)
물가		3.8	4.8	5.5	4.5	4.7	3.9	2.8	2.0	2.4	2.9	2.7	2.6	2.9	3.6	2.9	4.1	4.5(0.8)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지수는 2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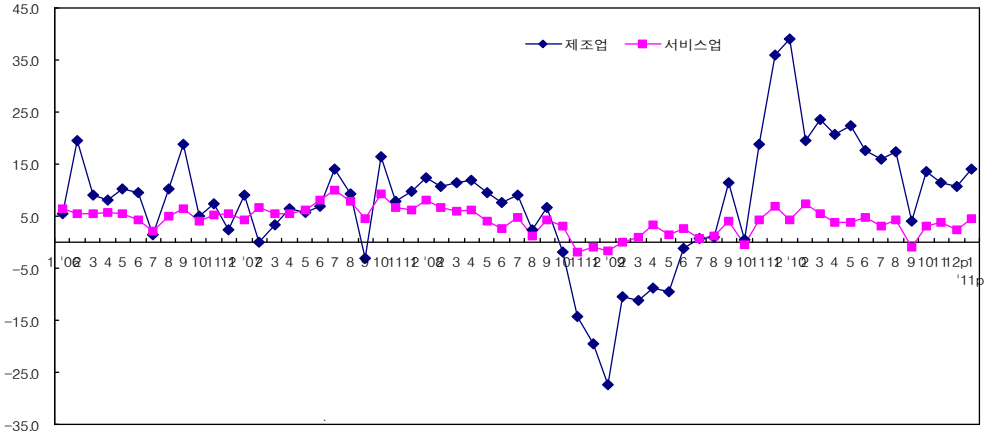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2011. 3), 『2011년 1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1년 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11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천 명(0.1%)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235천 명으로 22천 명(0.2%) 증가하였고, 여성은 9,879천 명으로 11천 명(0.1%) 증가하였음.

○ 2011년 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59.0%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71.3%)은 전년동월대비 0.6%p, 여성(47.3%)은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함(그림 3 좌측 참조).

○ 2011년 1월 중 고용률은 56.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68.4%로 전년동월대비 0.1%p, 여성의 고용률은 45.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그림 3 우측 참조).

○ 2011년 1월 중 취업자는 23,19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1천 명(1.4%)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67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1천 명(1.3%)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9,52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0천 명(1.6%) 증가하였음(그림 4 참조).

○ 2011년 1월 중 실업자는 91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8천 명(-24.5%) 감소하였으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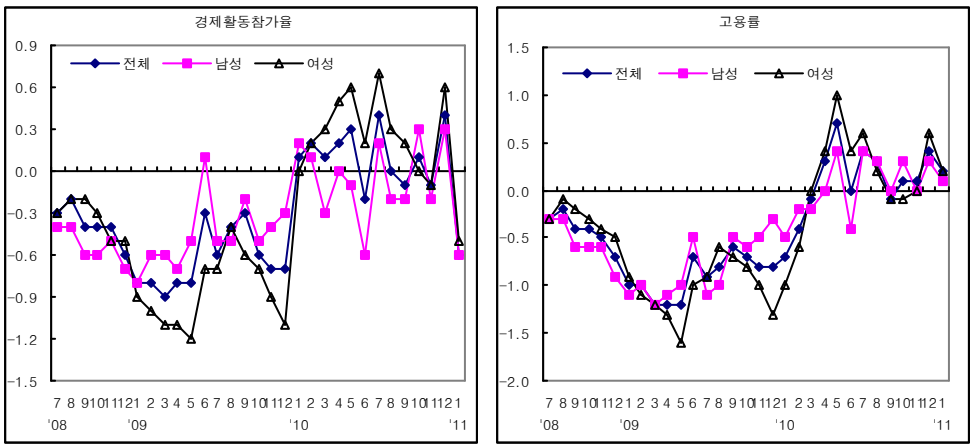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2011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4분기 1월
경제활동인구	24,448 (0.2)	24,166 (1.5)	24,082 (1.6)	25,038 (1.5)	24,993 (1.4)	24,796 (1.4)	24,538 (2.0)	24,114 (0.1)
참가율	60.7	59.8	59.6	61.8	61.5	60.8	60.1	59.0
취업자	23,631 (0.0)	23,037 (0.6)	22,865 (0.0)	24,170 (1.8)	24,120 (1.6)	23,989 (1.5)	23,684 (2.0)	23,196 (1.4)
고용률	58.7	57.0	56.6	59.6	59.3	58.9	58.0	56.8
실업자	817	1,130	1216	868	873	808	853	918
실업률	3.3	4.7	5.0	3.5	3.5	3.3	3.5	3.8
비경제활동인구	15,829 (3.0)	16,254 (1.0)	16,305 (0.9)	15,493 (1.0)	15,656 (0.8)	15,962 (0.3)	16,265 (0.1)	16,729 (2.6)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1. 2), 『2011년 1월 고용동향』.

〔그림 3〕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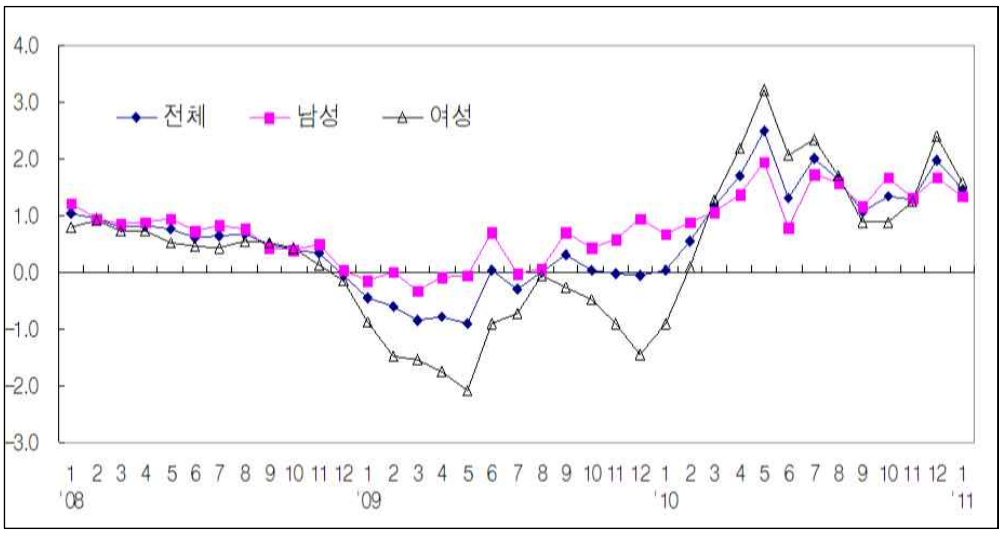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하였음.

- 남성 실업자는 56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0천 명(-22.1%), 여성 실업자는 35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9천 명(-28.0%)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9%로 전년동월대비 1.2%p, 여성은 3.6%로 전년동월대비 1.4%p 감소하였음.
- 2010년 1월 희망근로 모집에 따른 일시적 실업자 급증의 영향으로 2011년 1월 실업자는 크게 감소함.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1년 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72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4천 명(2.6%)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74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천 명(3.6%)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98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5천 명(2.1%)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3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천 명 증가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87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7천 명(21.9%),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212천 명으로 51천 명(1.2%) 증가함.

◈ 제조업 증가 지속,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 2011년 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224천 명, 5.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64천 명, 3.4%), 전기·운수·통신·금융업(34천 명, 1.2%), 건설업(15천 명, 0.9%)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04천 명, -9.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03천 명, -1.8%)에서는 감소함.

- 제조업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급격히 둔화하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증가 추세가 회복세를 보임(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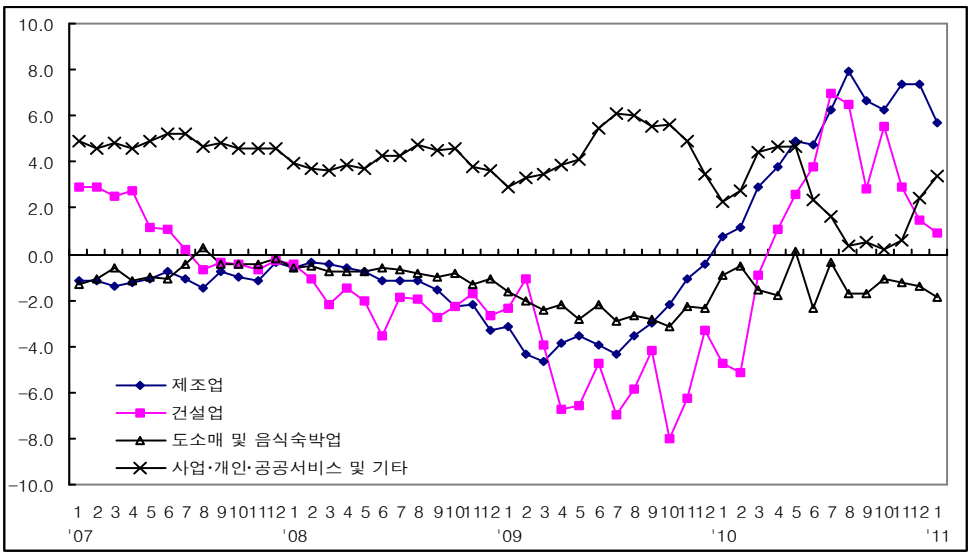
	2009	2010						2011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4분기 1월
전산업	23,631 (0.0)	23,037 (0.6)	22,865 (0.0)	24,170 (1.8)	24,120 (1.6)	23,989 (1.5)	23,684 (2.0)	23,196 (1.4)
농림어업	1,579 (-6.9)	1,235 (-11.7)	1,123 (-12.4)	1,733 (-4.6)	1,754 (-2.5)	1,544 (-2.2)	1,231 (0.0)	1,018 (-9.3)
제조업	3,862 (-1.2)	3,911 (1.6)	3,924 (0.8)	4,015 (4.5)	4,053 (6.9)	4,131 (7.0)	4,156 (7.3)	4,148 (5.7)
건설업	1,704 (-5.9)	1,644 (-3.6)	1,617 (-4.8)	1,816 (2.5)	1,791 (5.4)	1,761 (3.3)	1,726 (1.5)	1,632 (0.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11 (-2.6)	5,532 (-1.0)	5,602 (-0.9)	5,461 (-1.3)	5,443 (-1.2)	5,442 (-1.3)	5,488 (-1.4)	5,499 (-1.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149 (4.6)	7,859 (3.2)	7,737 (2.3)	8,294 (3.9)	8,244 (0.9)	8,234 (1.0)	8,186 (2.4)	8,001 (3.4)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02 (1.8)	2,834 (4.1)	2,839 (3.3)	2,831 (2.4)	2,816 (2.3)	2,855 (1.9)	2,871 (1.0)	2,874 (1.2)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1. 2), 『2011년 1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비임금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취업자 감소추세 지속

○ 2011년 1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36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4천 명(-3.1%)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83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5천 명(3.3%)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305천 명으로 593천 명(6.1%)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848천 명으로 13천 명(-0.3%), 일용근로자는 1,680천 명으로 45천 명(-2.6%) 감소함.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6 좌측 참조).
- 2010년 하반기 이후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감소 추세를 지속함(그림 6 우측 참조).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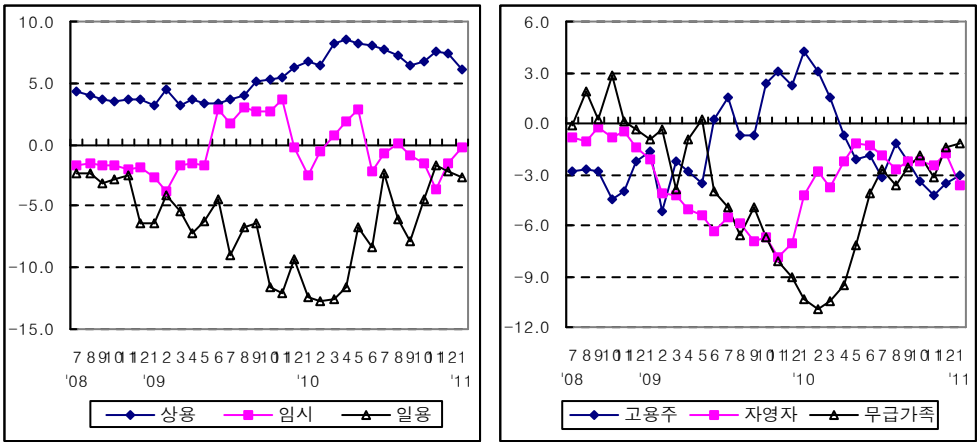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2011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4분기 1월
전 체	23,631 (0.0)	23,037 (0.6)	22,865 (0.0)	24,170 (1.8)	24,120 (1.6)	23,989 (1.5)	23,684 (2.0)	23,196 (1.4)
비임금근로자	6,952 (-5.3)	6,638 (-3.5)	6,569 (-3.5)	7,023 (-2.6)	6,994 (-2.4)	6,778 (-2.5)	6,531 (-2.2)	6,365 (-3.1)
자영업주	5,600 (-4.7)	5,514 (-1.9)	5,475 (-2.0)	5,696 (-1.6)	5,646 (-2.3)	5,514 (-2.6)	5,387 (-2.3)	5,283 (-3.5)
무급가족종사자	1,292 (-7.9)	1,124 (-10.6)	1,094 (-10.4)	1,327 (-6.9)	1,348 (-3.0)	1,264 (-2.2)	1,144 (-1.5)	1,081 (-1.2)
임금근로자	16,678 (2.4)	16,398 (2.3)	16,297 (1.5)	17,148 (3.8)	17,126 (3.3)	17,211 (3.2)	17,154 (3.6)	16,832 (3.3)
상용근로자	9,621 (5.7)	9,808 (7.1)	9,712 (6.7)	10,060 (8.2)	10,158 (7.1)	10,320 (7.3)	10,347 (7.4)	10,305 (6.1)
임시근로자	5,167 (2.1)	4,892 (-0.7)	4,860 (-2.4)	5,179 (0.8)	5,148 (-0.5)	5,052 (-2.2)	4,999 (-1.5)	4,848 (-0.3)
일용근로자	1,891 (-11.1)	1,699 (-12.5)	1,725 (-12.4)	1,909 (-8.8)	1,820 (-5.4)	1,838 (-2.8)	1,808 (-2.2)	1,680 (-2.6)
36시간 미만	2,961 (4.5)	4,851 (56.9)	3,202 (1.8)	3,197 (6.7)	3,329 (-1.8)	3,090 (4.4)	3,276 (4.8)	3,275 (2.3)
36시간 이상	20,404 (-0.7)	17,,671 (-8.7)	19,030 (-0.1)	20,705 (1.1)	20,362 (2.4)	20,620 (1.1)	20,114 (1.5)	19,267 (1.2)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1. 2), 『2011년 1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1년 1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27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천 명(2.3%),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26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7천 명(1.2%) 증가함.

– 18시간 미만 취업자 1,192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3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 명(-5.2%) 감소하였음.

◈ 전 연령 모두 실업자 증가

○ 2011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감소하였고, 특히 60세 이상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11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20대(8.0%, -0.7%p), 30대(3.6%, -0.3%p), 40대(2.2%, -0.7%p), 50대(2.5%, -1.2%p), 60세 이상(3.3%, -5.5%p)에서 감소함.

– 2011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중 60세 이상은 7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5천 명(-63.2%)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0년 1월 희망근로모집 영향으로 60세 이상의 실업자가 크게 감소한 영향임.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3.8%, -3.3%p), 고졸(4.4%, -0.8%), 대졸 이상(3.2%, -0.6%p) 모두 감소하였음.

○ 2011년 1월 중 전체 실업자 918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5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 명,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864천 명으로 282천 명 감소했음.

〈표 5〉 연령별 · 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2011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4분기 1월
전 체	817(3.3)	1,130(4.7)	1,216(5.0)	868(3.5)	873(3.5)	808(3.3)	853(3.5)	918(3.8)
15~29세	320(7.6)	408(9.5)	411(9.3)	332(7.7)	323(7.6)	297(7.1)	336(8.0)	363(8.5)
30~39세	202(3.3)	234(3.9)	232(3.9)	217(3.6)	213(3.5)	194(3.2)	193(3.2)	214(3.6)
40~49세	151(2.3)	192(2.9)	188(2.9)	154(2.3)	165(2.5)	151(2.2)	147(2.2)	143(2.2)
50~59세	104(2.2)	150(3.2)	172(3.7)	105(2.1)	113(2.3)	114(2.3)	121(2.4)	120(2.5)
60세 이상	41(1.5)	146(5.8)	216(8.8)	61(2.1)	59(2.0)	53(1.9)	56(2.2)	78(3.3)
중졸 이하	119(2.3)	241(5.1)	336(7.1)	131(2.5)	131(2.5)	112(2.2)	132(2.8)	173(3.8)
고졸	393(4.0)	493(5.0)	525(5.2)	386(3.8)	408(4.0)	392(3.9)	424(4.2)	442(4.4)
대졸 이상	306(3.2)	396(4.2)	355(3.8)	352(3.6)	334(3.5)	304(3.1)	298(3.1)	303(3.2)
취업무경험 실업자	36	57	70	46	35	38	47	54
취업유경험 실업자	781	1,072	1,146	823	838	770	806	864

주 :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1. 2), 『2011년 1월 고용동향』.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동향

◈ 2010년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대비 6.1% 상승

○ 2010년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81천 원으로 전년(2,622천 원)대비 6.1% 상승함.

- 2010년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4.9% 증가하여 2,931천 원, 비상용근로자는 전년대비 10.9% 증가하여 920천 원을 기록함.

○ 실질임금은 3.0% 상승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총액은 2,395천 원으로 전년대비 3.0% 상승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월, 2005=100.0, %)

		2007	2008	2009			2010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561 (-)	2,640 (3.1)	2,622 (-0.7)	2,641 (-1.2)	2,711 (1.9)	2,781 (6.1)	2,769 (6.0)	2,680 (6.2)	2,846 (7.8)	2,828 (4.3)
상용 근로자	임금 총액	2,716 (-)	2,810 (3.4)	2,795 (-0.5)	2,819 (-0.8)	2,915 (2.6)	2,931 (4.9)	2,922 (6.1)	2,834 (5.2)	2,996 (6.3)	2,973 (2.0)
	정액 급여	2,026 (-)	2,154 (6.3)	2,166 (0.6)	2,163 (0.7)	2,205 (0.5)	2,264 (4.5)	2,244 (4.7)	2,258 (4.7)	2,261 (4.6)	2,295 (4.1)
	초과 급여	165 (-)	163 (-1.1)	156 (-4.1)	164 (4.0)	170 (9.2)	186 (19.3)	170 (22.3)	187 (24.0)	187 (13.8)	201 (18.1)
	특별 급여	525 (-)	493 (-6.2)	472 (-4.2)	492 (-8.2)	539 (10.0)	480 (1.7)	508 (7.7)	389 (0.8)	548 (11.3)	477 (-11.6)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		904 (-)	855 (-5.5)	830 (-2.9)	817 (-7.2)	867 (3.7)	920 (10.9)	849 (2.4)	929 (15.4)	949 (16.2)	952 (9.8)
실질임금 (전체 근로자)		2,443 (-)	2,406 (-1.5)	2,324 (-3.4)	2,331 (-3.1)	2,389 (-0.5)	2,395 (3.0)	2,416 (3.2)	2,318 (3.5)	2,441 (4.7)	2,404 (0.7)
소비자물가지수		104.8 (-)	109.7 (4.7)	112.8 (2.8)	113.3 (2.0)	113.5 (2.4)	116.1 (2.9)	114.6 (2.7)	115.6 (2.6)	116.6 (2.9)	117.6 (9.8)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2011. 2),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명목·실질임금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실질임금은 아직까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2010년 4/4분기 임금 전년동기대비 4.3% 상승

○ 2010년 4/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28천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3%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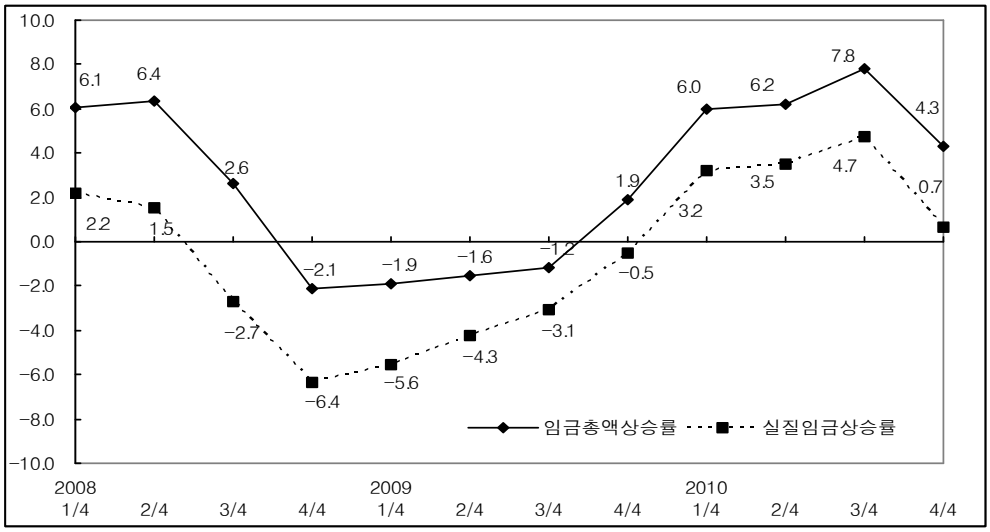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 증가율은 4.1%, 초과급여 증가율은 18.1%를 기록하였으나, 특별급여 증가율은 추석이 2009년에는 4/4분기(10월)였으나 2010년에는 3/4분기(9월)인 것에 기인하여 11.6% 감소함.
- 비상용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9.8% 상승한 952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
- 경기회복에 따른 초과급여 증가에 힘입어 임금상승률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실질임금은 0.7% 상승함.

- 2010년 4/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 5인 이상 사업체의 실질임금은 0.7%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2,404천 원임.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1년 1월 1일부터 2월 27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1건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1년 2월 23일 기준)는 58,386일로 집계됨.

〈표 7〉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 개소, %)

	2011. 1. 1~2011. 2. 27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1	5	-
종 결	0	1	-
진 행	1(9)	4(4)	(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58,386	44,433	3.4

주 :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2월 23일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복수노조 교섭대표노조와 교섭단 결정 절차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주요 내용

- 7월부터 노조 설립시 노조 설립신고서와 규약만 제출하도록 함.
- 노조의 교섭 요구시 노조법 제29조 2(교섭구조 단일화 절차)에 따라 노조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교섭을 요구일 현재 조합원수 등을 사용자에게 통보
- 노조교섭 사실을 공고할 경우 교섭을 요구한 노조명칭과 대표자 성명, 교섭요구일자, 다른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명시토록 함.
- 과반수 노조에 대한 이의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경우 노조 측은 조합원 명부와 조합비 납부증명서를, 사용자 측은 근로자 명부와 조합원 공제대상 명단을 각각 제출
- 노조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와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첨부하도록 함.

◈ 한국노총

○ 2월 24일(목) 14:00~16:20 한국노총은 KBS 88체육관에서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대의원<696명 중 487명 참석> 등 500여명 참석)

※ 주요 내용 : 정책연대 파기선언,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노사정 대화 제의, 대정부 총력투쟁 선언,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 부위원장단 등 선출, 결의문 채택

※ 총력투쟁 계획

- 상반기 : ▲노조법 재개정 관련 대화 요구(3월 말까지) ▲3월 초 투쟁상황실 설치 ▲4월 초 전국단위노조 대표자회의 ▲5.1 전국노동자대회 ▲5~6월 임단협교섭 투쟁 전개 ▲3월 각 정당에 노조법 개정 관련 입장 요구 ▲4월 임시국회에 법개정 요구 ▲4.27 재·보궐선거 반노동자 정당 낙선운동 전개 지침 시달
- 하반기 : ▲9월 지도부 현장순회 ▲10월 임시대의원대회 ▲11월 전국노동자대회 ▲12월 정기국회 대비 지역별 집회 및 총력투쟁 전개

※ 노조법 재개정 관련 총력투쟁 결의 : ▲정책연대 파기 및 노조법 전면 재개정 총

력투쟁 전개 ▲노동자들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 ▲대중적인 진보연대전선 동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체계 개편 투쟁 ▲조직혁신을 통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 강화 등

◈ 민주노총

○ 2월 10일(목) 민주노총은『현대차는 법과 노동자의 요구에 따른 사내하청 정규직화 실시하라』제하의 성명 발표

-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판결이 파기환송심인 고법에서도 최종 확인됐다며 현대차는 현대차의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 모두에게 이번 판결을 적용하여 즉각 정규직화하고, 이제라도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충실히 대화에 응해야 하며
- 현대차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형식적인 전제 위에서 그릇된 판단을 내려온 중노위와 판결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해묵은 조사기준으로 사내하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조업의 불법파견은 극히 일부라는 엉터리 결과를 내놓은 고용노동부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무유기와 사용자 편향성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2월 27일(일) 민주노총은『4인 가구 표준생계비 월 505만 원』으로 발표

- 2010년 11월 물가를 기준으로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를 조사한 결과, 1인가구 1,828,325원, 2인가구 3,758,091원, 4세 자녀둔 3인가구 3,972,918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2010년 3/4분기 노동자 월평균 임금을 4인가구 표준생계비에 비교하면 56.3% 수준에 불과, 물가는 급속히 오르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대기업의 소득 독점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 임금을 표준생계비의 8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함.

◈ 경총, 2011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안 채택

○ 2월 27일(일) 경총은 정기총회에서 '임금인상률 3.5%내 이내에서 조정'할 것을 주문하는『11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안』채택

※ 주요 내용 : ▲외부적 요인(복수노조, 타임오프제)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인상의 최소화 ▲성과를 반영한 사후적 임금결정 체계로의 전환 ▲최저임금 안정 등

- 권고안은 올해 임금을 3.5% 범위 내에서 조정하되, 고임금의 대기업은 되도록 3.5%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협상을 해 여유 재원을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것을 요청
- 현재 60%대 초반인 고용률을 앞으로 10년간 선진국 수준인 70%로 끌어올리는 '국가고용률 프로젝트 1070'을 달성하려면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 임금은 생산성 증가 범위 내에서 안정돼야 할 것임.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3개지회 : 울산・아산・전주공장지회)

○ 2월 7일(월) 17:50~20:15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1공장사업부 대의원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수석부지회장 최병승(현 금속노조 미비국장, 2010.7.22 사내하청 관련 대법판결 해당자)・사무국장 윤석원(현 1공장 조합원)을 선출하고, ▲조합비 유용 관련 별도 진상조사위를 구성치 않고 쟁대위에서 조사키로 결정

○ 2월 7일(월) 14:00~17:30 현대차지부・금속노조・사내하청3지회, 회동
- 현대차지부와 현대차간 실무합의안(비공개) 수용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사내하청지회가 완강히 거부하여 진전없이 종료
- 현대차지부는 앞으로 더 이상 중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예성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 판결내용 : 현대차가 원고(최병승)에 대해 노무지휘 권한을 행사한 근거로 ▲원고가 근무한 의장라인에 현대차 정규직과 하청업체 인원이 혼재돼 근무한 점,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현대차가 작성한 사양일람표・사양식별표・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점, ▲현대차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연장근로 여부・교대제 운영 여부・작업속도 등을 결정한 점, ▲산재나 휴직 등으로 정규직 결원시 하청업체 근로자로 대체한 점 등을 적시(매월노동뉴스, 2011년 2월 11일자 참조)

○ 2월 10일(목) 14:00~14:30 금속노조 및 현대차 사내하청3지회는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불법파견 사용자 정몽구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금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사실상 불법파견인 바 고용의

제가 적용되어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며

-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정부는 불법파견 사용자 정몽구를 처벌하라고 주장

○ 2월 10(목) 사측은『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 2월 10일 10:00 서울고법 제3행정부(파기환송심)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모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현대차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고 계속근로기간 2년이 경과함으로써 2004년 2월 이미 현대차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다"는 판결을 하였다며
- 담당 재판부가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했다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고, 대법원에 즉각 상고 및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사내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번 판결은 울산공장 협력업체에 근무하던 최 모씨가 개인적으로 제기한 소송이므로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힘.

◈ GM대우자동차

○ 2월 25일(금) 노사는 '특별단체교섭 관련 합의서' 체결

※ 합의내용 : ▲상여가산금 지급변경 : 통상 30시간 → 통상 39.2시간(인상된 9.2시간분은 1인당 월평균 42,255원에 해당)

- 이와 별도로 이날 노사는 '노동조합 활동 관련 별도 합의서' 체결

※ 합의내용 : 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단, 세부사항과 운영방안은 별도 논의)

○ 그간, 2010년 7월 22일 노사는 20차 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근로시간면제한도 제외) → 7월 26일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결(59.7% 찬성) → 8월 12일 노사, 임단협 조인식 개최

※ 노사합의 주요 내용 : < 임단협 > ▲기본급 74,359원(호봉승급분 12,359원 포함) 인상(기본급 대비 4.6%), ▲격려금 250만 원(타결즉시), ▲성과금 200만 원(연말), ▲사회공헌기금 12억 원 출연 등

※ 노조 별도요구안 관련 : ▲전임자 : 별도기구 구성하여 가능한 방안 논의, ▲월급제 및 주간연속2교대제 : 노사실무위원회에서 지속 논의, ▲수당체계 개선 :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논의 등

- 2010년 8월 1일부터 사측, 기존 전임자 91명에 대한 급여지급 중단

- 2011년 1월 11일 노사, 근로시간면제 관련 특별단체교섭 상견례 개최
- 2011년 2월 15일 노사, 특별단체교섭(3차)에서 '상여가산금 인상'(통산시급 9.2시간분, 1인당 월평균 42,255원)에 잠정합의

※ 상여가산금 인상 : 통산시급의 30시간분 → 통산시급의 39.2시간분('10.4.1자 소급적용)

- 2월 23일~2월 24일 노조, 무급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조합비(통상임금의 2.2%, 1인당 월평균 42,074원에 해당) 신설 내용의 규약개정안 찬반투표 가결(91.3% 찬성)

◈ 영남대의료원

○ 2월 22일(화) 17:00부터 2.23(수) 02:20까지 경북지노위는 임단협 관련 조정회의 → 노사 경북지노위 조정안 수락, 조정성립

※ 노조, 2.1 조정신청 → 노사, 2차례 조정기간 연장(2.16→2.21→2.22)

※ 주요 내용 : <임금협약> ▲2010년도 임금, 기본급 3% 인상, <단체협약> ▲단협, 기본적으로 기존 단체협약 유지, 근로시간면제 : 기존 전임자 3명 ⇒ 2,000시간(풀타임 1명)

○ 그간, 2009년 10월 16일 노사 임단협 상견례 및 1차 교섭 개최 → 2009년 11월 26일 사측이 인사·경영권 침해 단협조항(45개)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노조는 거부

- 2010년 8월 23일 사측, 노조에 단협해지 통보(2011.2.24 해지발효 예정)

※ 2009년 10월 16일~2011년 1월 27일까지 노사는 본교섭 17차례, 실무교섭 72차례 실시

- 2월 1일 노조, 경북지노위에 임단협 관련 조정신청
- 2월 17일~2월 18일 노사 2차례 실무교섭, 주요쟁점 이견으로 진전 없이 종료

※ 사측, 의료기관평가 현장실사(2.22~2.25)를 앞두고 노조와의 갈등을 우려하면서도 과도한 노조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 ↔ 노조, 조정기한까지 미타결 시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집중투쟁(2.21~25)을 실시한다는 입장

- 2월 21일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한나라당 대구시당 앞, 150여명) 및 대구시내 선전전 실시

※ 영남대의료원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영남대의료원 노사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노<사> 주요 쟁점 : ▲기본급 7만 원 인상 <동결>, ▲탁아소 설치 <수용불가>, ▲

단협해지 철회 <수용불가>, ▲해고자 복직 <수용불가>, ▲기존 전임자 3명 인정 <수용불가>

◈ 언론노조

○ 2월 24일(목) 언론노조 임원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이강택(위원장)-강성남(수석부위원장) 후보조가 98.2% 찬성으로 당선(임기 3.1부터 2년)

※ 재적대의원 164명 중 114명 투표 → 찬성 112명(98.2%), 반대 2명

※ 위원장 당선자 공약: ▲방송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 쟁취 ▲신문 공정성 강화, ▲조중동 종편채널 무력화, ▲지역·종교·풀뿌리 언론 생존기반 강화 등

◈ 전국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

○ 2월 24일(목) 16:00~17:30 전국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위원장 구수영)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LPG 폭등 규탄 및 생존권 쟁취 택시노동자 총궐기 선포대회』 개최(1500여명 참가)

○ 2월 24일(목) 오전 전국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는 서울 종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는 LPG 안정화 대책 실시하라』 제하의 기자회견 개최

※ 주요 요구사항: ▲LPG 공급사들은 3월부터 LPG 가격을 대폭 인하할 것, ▲정부는 LPG 가격 안정화 대책 실시할 것, ▲한나라당은 택시노동자의 유류비 부담 철폐 입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것, ▲정부는 택시기사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 KLI

(반정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